

주간 통일정세

2017-18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4.29	北 유엔차석대사 “제재로 핵 포기시키겠다는 건 허황된 꿈”(연합뉴스) 北매체 “제국주의 사상·문화는 침략주역…공격전 벌여야”(연합뉴스)		
	5.1	김정은, 물길건설 지원 근로자에 감사(연합뉴스) 박봉주·김기남, 노동절 맞아 근로자 고무(연합뉴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알바니아 대통령에 축전(연합뉴스) 北, 노동절 맞아 김정은에 충성 독려(연합뉴스) 北, 노동절 맞아 국제사회 제재 대응 ‘자력자강’ 강조(연합뉴스)		
		5.3	리용호 외무상, 모로코 신임 외교장관에 축전(연합뉴스)	
		경제	4.29	“中, 유엔이 수입 금지한 북한산 광물 반입 지속”(연합뉴스)
			4.30	“北 지방도시 주유소 정상 운영…평양과 달라”(연합뉴스)
	5.3		北, 3월 중국산 곡물 수입 증가…“전년 동기의 33배”(연합뉴스)	
5.4	“中 세관, 북한행 수출화물 전수검사로 전환”(연합뉴스) “지난해 북한-EU 교역 전년보다 10% 감소”(연합뉴스)			
사회 문화	4.30	北TV, 구소련영화 매달 방영…中영화는 3년째 외면(연합뉴스) 北 남포시 초등학교·중등학교 준공식(연합뉴스) 北 자강도 강계시 가방공장 준공식(연합뉴스)		
		5.2	北 청진 초등학교·중등학교 준공식(연합뉴스) 2017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참가 北선수단 귀국(연합뉴스)	
			5.3	北에 ‘머리 기르고 결혼할’ 승려 300여 명 활동(연합뉴스) 北, 전자기기 보급 늘면서 폐기물 재자원화 강조(연합뉴스) 北매체, 만리마속도 독려…각지역 공사현장 대서특필(연합뉴스)
	5.4	北, 석기탄신일 맞아 각지 사찰서 범회(연합뉴스)		
	외교 국방	4.29		北 “우리 핵미사일 최종목표는 항모 아닌 美 본토”(연합뉴스) 北매체, 美경고에 “강자엔 허세 안 통해…놀랄 우리 아냐”(연합뉴스) 日 정부 “北미사일 발사,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용인못해”(연합뉴스) 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수분간 비행하다 공중폭발(연합뉴스)
			4.30	北, 美핵잠수함 미시간호에 “움짤하면 물귀신 될 것”(연합뉴스) 北매체 “핵 틀어쥔 우리에게엔 미지광이 전략 안 통해”(연합뉴스)

	<p>트럼프 “北 핵실험하면 기분나쁠 것”…군사대응 묻자 “지켜보자”(연합뉴스)</p> <p>北 한성렬, 주북 러 대사 면담…“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p> <p>北, 美항모 공격용 ‘북한판 동평미사일’ 개발 열중(연합뉴스)</p>
5.1	<p>트럼프 “北, 더 나은 핵운반 수단 갖게 못 놔둬”(연합뉴스)</p> <p>조선신보, 취임 100일 트럼프에 “사기꾼” 원색 비난(연합뉴스)</p> <p>北, 美 새 대북정책에 첫 공식반응…“核고도화 계속 진행”(연합뉴스)</p> <p>트럼프 “北 위협 계속 놔둘 수 없어…최악 대비해야”(연합뉴스)</p> <p>北당국자, 美압박속 아프리카 돌며 ‘김일성 향수’ 자극(연합뉴스)</p> <p>인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명령 발표…제재 적극 동참(연합뉴스)</p>
5.2	<p>백악관 “북미대화에 여러 조건…도발적 행동 즉각 중단해야”(연합뉴스)</p> <p>北, 대외선전에 가상영상 적극 활용…새 영상 또 공개(연합뉴스)</p> <p>北매체 “전쟁나면 日이 최대 피해”…위기조장 日에 ‘경고’(연합뉴스)</p> <p>“알리리보다 제재 우선”…日, 언론인 北 방문취재 차단(연합뉴스)</p> <p>中, 北 미사일 기술 ‘흑평’…“기술 부족 드러내”(연합뉴스)</p>
5.3	<p>北매체 “미국 공민 김상덕씨 적대행위로 억류” 보도(연합뉴스)</p> <p>北 “中, 북중관계 붉은선 넘고 있다”…관영매체 고강도 직접비난(연합뉴스)</p> <p>러 “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못해…안보우려 관련국이 해소해줘야”(연합뉴스)</p>
5.4	<p>토머스 美통합특수전사령관 “한반도 유사시 北핵시설 타격 준비”(연합뉴스)</p> <p>美국무장관 “현재 대북전략의 20~25% 수준…압박조치 많이 있어”(연합뉴스)</p> <p>라울 카스트로 “쿠바, 北과 반미선전에 함께 있을 것”(연합뉴스)</p> <p>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물빼기 작업, 배구 게임도”(연합뉴스)</p>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 일자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5. 1.

■ 김정은, 물길건설 지원 근로자에 감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 물길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일 보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5. 1.

■ 박봉주·김기남, 노동절 맞아 근로자 고무(연합뉴스)

- 노동절을 맞아 1일 박봉주 내각총리와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과 정권 간부들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국가과학원 등에 나가 근로자들을 고무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다. 공식행사

2017. 5. 1.

■ 北, 노동절 맞아 김정은에 충성 독려(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5·1절 127돌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일 남흥청년화학련합(연합)기업소에서 진행되었다"면서 행사에 전광호 내각부총리가 참석했다고 보도함.
- 전 부총리는 보고에서 "근로자들을 나라의 주인,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영도사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즐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 그는 김정은 시대의 구호인 '강원도 정신'을 강조한 뒤 "모든 근로자들이 일심단결에 우리 식 사회주의 불가항력적 위력이 있다는 철리(깊고 오묘한 이치)를 심장에 깊이 새기고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경애하는 원수님(김

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자"고 발언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7. 5. 1.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알바니아 대통령에 축전(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알바니아의 렉스헤프 메이다니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2017. 5. 3.

■ 리용호 외무상, 모로코 신임 외교장관에 축전(연합뉴스)

- 리용호 외무상이 모로코 신임 외교장관으로 임명된 나세르 부리타에게 3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날 리 외무상은 국경절을 맞는 비톨트 바슈치코프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에게도 축전을 보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4. 29.

■ 北 유엔차석대사 “제재로 핵 포기시키겠다는 건 허황된 꿈”(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28일(현지시간) A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군사 위협과 제재로 제거하려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주장함.
- 김 차석대사는 북한의 핵무기는 "정치적 흥정이나 경제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우리의 핵무기 포기를 논의하는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발언함.
- 그는 "우리의 핵 능력은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 미국으로부터 세계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억지력이자 애지중지하는 정의의 칼"이라면서 이날 북핵을 논의한 안보리 회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함.

■ 北매체 “제국주의 사상·문화는 침략주역…공격전 벌여야”(연합뉴스)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9일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게재된 개인 필명의 글에서 '반동적인 사상 문화'가 제국주의 침략의 '주역'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함.

- 매체는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벌어진 '색깔 혁명'(정권교체 혁명)을 거론하며 제국주의의 사상적 침투가 '심각한 사회정치적 혼란과 파국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함.
- 매체는 "제국주의자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제압하고 내부적으로는 씹어빠지고 퇴폐적인 사상 문화를 쓸어버리기 위한 공격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함.

2017. 5. 1.

■ **北, 노동절 맞아 국제사회 제재 대응 '자력자강' 강조(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노동절을 맞아 1면에 게재된 '만리마 대진군에서 주체조선 근로자들의 영웅적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가 잘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反)공화국 책동은 지금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함.
- 사설은 이어 "어떤 제재와 봉쇄도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만장약한(가득 채운) 우리 인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고 주장함.
- 사설은 '역사에 유례없는 온갖 도전과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모든 경제 부문에서 '전례 없는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고 있다며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모두의 심장 속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주체의 길, 자주의 궤도 위에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7. 4. 30.

■ “北 지방도시 주유소 정상 운영…평양과 달리”(연합뉴스)

- 최근 평양을 시작으로 북한 전역에서 유가가 급등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지방 도시의 주유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의 대북 매체를 인용해 30일 보도함.
- 북한 내부 사정을 취재하는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 내부자가 전해온 내용이라며 "현재 양강도, 함경북도 등에서는 휘발유 판매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RFA에 제보함.
- 아시아프레스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연료값이 특별히 오르지 않았고 (당국이) 판매를 제한하지도 않는다"며 "개인 장사꾼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당 중국 돈으로 6위안(990원), 좋은 품질은 6.5~7위안(1천70~1천160원)까지 한다"고 보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4. 29.

■ “中, 유엔이 수입 금지한 북한산 광물 반입 지속”(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산 광물을 올해 1분기(1~3월)에 계속 수입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분기에 아연 68만달러(약 7억7천500만원), 은 12만달러(약 1억3천700만원) 어치를 각각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이들 광물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중국에 팔림.
- 북한산 구리도 지난 1~2월에 걸쳐 10만달러(1억1천400만원) 어치가 중국에 수출됐다고 VOA는 보도함.

2017. 5. 3.

■ 北, 3월 중국산 곡물 수입 증가…“전년 동기의 33배”(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3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 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 등을 인용해 3일 보도함.

-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 3월 중국으로부터 4천400t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그 전달인 2월 곡물 수입량(1천275t)의 약 3.5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3배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권 원장은 설명함.

2017. 5. 4.

■ **“中 세관, 북한행 수출화물 전수검사로 전환”(연합뉴스)**

- 중국 해관(세관) 당국이 최근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을 기존 선택검사에서 전수 검사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함.
- 중국 단둥(丹東)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 소식통은 "중국 해관 당국이 전수검사를 채택한 것은 불과 지난 주부터"라며 "이 때문에 물건을 신고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화주(화물 주인)들은 해관 통관절차에 종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RFA에 제보함.
- 중국 변경도시의 또 다른 무역업자는 RFA에 "지금까지 선택검사를 한 중국 해관 당국이 인원 부족과 기술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전수검사 방식으로 바꾼 것은 중국이 작심하고 대북 무역제재의 강도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함.

■ **“지난해 북한-EU 교역 전년보다 10% 감소”(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과 유럽연합(EU) 간 교역이 전년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EU 집행위원회의 '2016년 교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EU 교역액은 약 2천700만 유로(약 2천95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RFA는 보도함.
- 이는 1년 전인 2015년의 약 3천만 유로(약 3천300만 달러)보다 10% 줄어든 수치임.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4. 30.

■ 北TV, 구소련영화 매달 방영…中영화는 3년째 외면(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가 올해 들어서도 구소련영화를 정기적으로 방영하고 있음.
- 4월 30일에 있었던 구소련영화 방영은 올해 들어 4번째로, 북한은 매달 1차례씩 구소련영화를 내보냄.
- 북한 TV는 2013년까지는 중국영화를 구소련영화보다 더 많이 내보냈으나 중국 영화는 2014년 6월 22일 마지막 방영을 끝으로 북한 TV에서 사라졌고, 현재 북한 TV에서 볼 수 있는 외국영화는 구소련영화가 유일함.

■ 北 남포시에서 초등학교·중등학교 준공식 개최(연합뉴스)

- 남포시에서 28일 고아 양육시설인 초등학교, 중등학교 준공식이 열렸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함.
- 이날 남포 전쟁노병보양소도 준공함.

■ 北 자강도 강계시에서 가방공장 준공식 개최(연합뉴스)

- 자강도 강계시에서 가방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준공식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함.

2017. 5. 2.

■ 北 청진 초등학교·중등학교 준공식(연합뉴스)

- 함경북도 청진시 나남구역에 고아 양육시설인 초등학교·중등학교가 건설돼 2일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2017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참가 北선수단 귀국(연합뉴스)**

-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린 2017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2일 평양으로 돌아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은 금메달 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함.

2017. 5. 3.

■ **北에 '머리 기르고 결혼한' 승려 300여 명 활동(연합뉴스)**

- 북한에서는 석가탄신일과 열반절(음력 2월 15일), 성도절(음력 12월 8일) 등 이른바 불교의 3대 명절에 형식상이나 기념법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짐.
- 평양의 대성산 광법사와 개성 영통사, 금강산 신계사, 묘향산 보현사 등 60여 개 주요 사찰에서 300여 명의 승려가 종교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1만여 명의 신도가 등록된 것으로 전해짐.
- 남북한 불교는 전통의 조계종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북한은 승려의 삭발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결혼까지 허용하고 있음.

■ **北, 전자기기 보급 늘면서 폐기물 재자원화 강조(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7년 1호에는 '경제생활에서의 재자원화'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3일 확인됨.
- 해당 논문에서 저자는 "전자제품 폐기물, 전자오물(쓰레기)은 일반 오물과 달리 매몰하거나 소각하면 토양과 물,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며 전자쓰레기 재자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함.
- 저자는 "지식경제시대에 와서 사람들의 전자제품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전자제품 폐기물들이 대량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것은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들은 갱신주기가 일반 기계설비에 비해 현저히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北매체, 만리마속도 독려...각지역 공사현장 대서특필(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평양 여명거리건설장에서 창조된 만리마속도가 황해남도의 한 수로 공사 구간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며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작업 실태를 상세하게 소개함.
- 노동신문은 '굴함 없는 공격 정신으로 새 기록, 새 기준을 돌파하며 힘차게 전진하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황해남도 2단계 수로 공사장에 투입된 남포시여

단 건설자들이 맨 손으로 암반을 굴착하는 현장을 전하면서 "발파로 암반(암벽) 굴착을 할 수 있었지만 언제(댐) 기초에 균열이 생겨 물이 셀 수 있어 오직 함마(해머)와 정대(쇠막대기)로 암반을 까내야만 하였다"고 보도함.

- 신문은 또 평안북도여단이 맡은 작업장에서는 자연현상으로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지만 젖은 흙을 지고 달리면서도 돌격대원들은 한 사람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보도함.

2017. 5. 4.

■ **北, 석가탄신일 맞아 각지 사찰서 법회(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3일 각지 사찰들에서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조국통일기원법회'가 진행되었다"며 "법회들에는 조선불교도연맹 교직자들과 승려, 신도들이 참가하였다"고 밝힘.
- 매체는 "법회들에서는 예식과 연설들이 있었으며 공화국 전체 불교도들의 드높은 통일 의지를 담은 발언문이 발표되었다"고 주장함.
- 매체는 "우리들은 불살생의 계율과 평화의 이념을 지켜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행에 적극 나서겠다"고 주장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4. 29.

■ **北 “우리 핵미사일 최종목표는 항모 아닌 美 본토”(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핵전쟁 도발로 얻을 것은 중국적 멸망뿐'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백두산 혁명강군에게 있어서 조준경 앞에 바짝 다가들어 비대한 몸집을 흔들어대는 항공모함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력한 핵탄두들을 탑재한 우리 전략 로켓(미사일)들의 최종 목표는 미 본토"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은 지금까지 지리적으로 조선반도(한반도)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제 나라를 안식처로 생각해왔다"며 "그런 지리적 행운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면서 미제는 조선반도에 각종 핵전략 자산들을 닦치는 대로 끌어들

여 핵 위협 공갈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함.

- 신문은 "그 위협의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 것인지 미국이 똑똑히 알게 해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라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우리의 핵 선제 타격수단들 앞에 완전히 노출되어있다"고 주장함.

■ **北매체, 美경고에 “강자엔 허세 안 통해…놀랄 우리 아냐”(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강자에겐 허세가 통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허장성세하며 발악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냐"라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북한은 우리 대통령(트럼프)의 결의를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시 경고발언 등을 거론하며 '힘이 약한 민족을 골라 타격하며 힘자랑하는 미국의 희떠운 객기'라고 주장함.
- 통신은 "경고하건대 미국이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감히 시험하려 든다면 진짜 전쟁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2017. 4. 30.

■ **北, 美핵잠수함 미시간호에 “움짱하면 물귀신 될 것”(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국내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호(SSGN 727)를 '물귀신'으로 만들겠다고 대남 매체를 통해 주장함.
-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0일 북한군 군관 '장호성'의 명의로 게재한 글에서 "미시간호가 감히 움짱하려 한다면 그 순간에 영원히 부상하지 못하고 물귀신이 되는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우리의 군사적 위력 앞에서 핵 항공모함이든, 핵잠수함이든, 그 무엇이든 파고철 덩어리로 나뒹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매체 “핵 틀어쥔 우리에겐 미치광이 전략 안 통해”(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로 거론되는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 전략도 핵을 가진 자신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북한의 대외 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29일 '미치광이 전략도 통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치광이 전략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위의 핵을 틀어쥔 조선(북한)에는 추호도 통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 매체는 "조선은 원래부터 미국을 침략과 살인에 미친 나라로 보고 있다"며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미국의 행동 자체가 '미치광이 짓'이라고 주장함.

■ 트럼프 "北 핵실험하면 기분나쁠 것"...군사대응 묻자 "지켜보자"(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가 핵실험을 하면 나는 기쁘지(happy)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그는 '기쁘지 않다는 게 군사적인 행동을 뜻하느냐'는 진행자 존 디커슨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내 말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함.
- 디커슨이 "트럼프 대통령과 당신의 행정부가 북한에 '미사일을 쏘지 말라'고 했다"면서 미 정부의 압박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을 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함.

2017. 5. 1.

■ 트럼프 "北, 더 나은 핵운반 수단 갖게 못 놔둬"(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결국 김정은은 더 나은 핵운반 수단(better delivery system)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놓아둘 수 없다"고 발언함.
- 그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역시 통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단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몰랐으면 할 뿐"이라고 답변함.
-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아버지가 죽고 정권을 물려받을 때 26세 또는 27세의 젊은이였고, 특히 장군들을 비롯해 매우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뤄야 했다"면서 "(그런데도) 매우 어린 나이에 그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고 평가함.

■ 조선신보, 취임 100일 트럼프에 "사기꾼" 원색 비난(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악독한 폭력배, 사기꾼'이라고 묘사함.
-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던 '긍정적인 공약'마저 저버렸으며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 공습을 단행한 것은 "엄청난 전쟁범죄"라고 주장함.
- 또한 "(시리아 공격은) 트럼프에게는 중국과 조선(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거기에는 한갓 장사꾼이 갖는 '거래'의 발상과 가치관밖에 없다"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에 '강박'한 것으로 볼 때 "장사꾼이라기보다 악독한 폭력배, 사기꾼"이라고 주장함.

■ **北, 美 새 대북정책에 첫 공식반응…“核고도화 계속 진행”(연합뉴스)**

- 북한은 1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새로 고안해낸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 정책에 매달리면서 우리에게 대한 전면적인 제재·압박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도 최대의 속도로 다그쳐질 것"이라고 주장함.
- 담화는 "우리의 핵 무력 고도화 조치는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우리는 미국의 그 어떤 선택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모든 준비가 다 되어있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공갈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핵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 **트럼프 “北 위협 계속 뇌들 수 없어…최악 대비해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보수성향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관련해 "최악을 대비해야만 한다"고 발언함.
- 그는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주장함.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위협적이다. 끔찍한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2017. 5. 2.

■ **백악관 “북미대화에 여러 조건…도발적 행동 즉각 중단해야”(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북미대화에는 여러 조건이 있으며 도발 중단은 그중 하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힘.
- 손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적절한(appropriate) 환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있다.

'올바른 환경 아래'(under the right circumstance)라는 것은 어떤 합의된 표현" 이라면서 "이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힌 대북정책과도 궤를 같이하고 일치 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즉각 중단되는 것을 봐야 한다"면서 "(북미대화에는) 많은 조건이 있다.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뭔가 (변화가) 일어나 야 하고, 또 그들이 선의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함.

■ 北, 대외선전에 가상영상 적극 활용...새 영상 또 공개(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2일 '올 높은 다 오라! 양키들아'라는 제목의 약 4분짜리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 영상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을 비롯해 잠수함, B-52와 B-1B 폭격기, 스텔스기 등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등장시켜 그 위에 가상의 망원경과 조준경을 삽입함.
- 영상은 "내 조국의 푸른 하늘과 바다를 오염시키려 벌떼처럼 달려드는 승냥이 무리들"이라며 "때려잡을 그놈들 우린 하나, 둘 세어본다. 올테면 오라, 올 높은 다 오라"는 자막을 삽입함.

2017. 5. 3.

■ 北매체 “미국 공민 김상덕씨 적대행위로 억류” 보도(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3일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씨가 북한에서 적대 행위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보도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적대 행위를 감행한 미국 공민을 억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회계학 교수로 초빙되었던 미국 공민 김상덕이 지난 시기는 물론 이번 체류 기간에도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행위를 하였으므로 공화국 법에 따라 그를 4월 22일 8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단속하였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현재 해당 법기관에서는 김상덕을 억류하고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2017. 5. 4.

■ 토머스 美통합특수전사령관 “한반도 유사시 北핵시설 타격 준비”(연합뉴스)

- 한반도에 유사시 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타격해 무력화시킬준비가 돼 있다고 레이먼드 토머스 미국 통합특수전사령부(SOCOM) 사령관이 2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주장함.
- 토머스 사령관은 미 특수부대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 육·해·공군 특수전 대원들이 한반도에 상주 또는 교대로 주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대량 살상무기 기지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함.
- 토머스 사령관은 "미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 군의 조직과 역량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유사시 북한을 겨냥한 특수전 작전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미국무장관 “현재 대북전략의 20~25% 수준…압박조치 많이 있어”(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전략과 관련해 "우리는 전략의 20~25% 수준에 있다"며 "북한을 지속해서 압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함.
-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행동이 추가 제재를 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점을 생각해서 미래 안보를 위한 다른 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발언함.
- 그는 "북한의 정권 교체, 체제 붕괴, 통일 가속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며, 38선을 넘어 북한을 공격할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니다"라며 "북한의 미래 안보와 경제 번영은 비핵화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된다는 것이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라고 발언함.

나. 북·중 관계

2017. 5. 3.

■ **北 “中, 북중관계 붉은선 넘고 있다”…관영매체 고강도 직접비난(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철'이라는 개인 명의로 게재한 '조중(북중)관계의 기등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중관계의 '붉은 선'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붉은 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존엄과 힘의 절대

적 상징이며 최고 이익"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중문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최근 잇단 논평으로 대북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을 거론하며 "조중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미국의 장단에 놀아대는 비열한 행위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해 나섰다"고 평가함.

다. 북·일 관계

2017. 4. 29.

■ 日 정부 “北미사일 발사,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용인못해”(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되는 도발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발언함.
-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부터 정보 수집·분석에 전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예측 못한 사태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함.

2017. 5. 2.

■ 北매체 “전쟁이면 日이 최대 피해”…위기조장 日에 ‘경고’(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의 병참기지, 발진기지, 출격기지로 되고 있는 일본이 제일 먼저 방사능 구름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대양 건너의 미국도 조준경 안에 넣고 있는 우리의 혁명무력이 일본을 타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은 물론 그 뒷바라지를 해준 자들도 무사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논평은 "지금 일본이 정말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조선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며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알권리보다 제재 우선”…日, 언론인 北 방문취재 차단(연합뉴스)

-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무성은 지난 1일 외무보도관 및 영사국장 등이 서명한

- 문서를 일본신문협회 및 외무성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 등에 보내 일본인 기자
의 북한 방문 취재 자제를 요청함.
- 외무성은 문서에서 "북한에는 일본의 재외공관이 없고 사건·사고를 당할 경우에
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함.
 - 이어 외무성은 지난 2월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독자 제재로 일본인
의 북한 방문 자제를 요청한 점을 거론하며 "이 취지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함.

라. 북·러 관계

2017. 4. 30.

■ 北 한성렬, 주북 러 대사 면담…“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이 30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한성렬 부상은 이날 면담에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핵 억제력 강화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통신은 마체고라 대사가 북한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반도 정세가
하루빨리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장함.

2017. 5. 3.

■ 러 “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못해…안보우려 관련국이 해소해줘야”(연합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군비통제국
국장은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회의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불이행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함.
- 울리야노프는 그러나 "한반도 긴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뿐 아니라 일부
동북아 역내, 특히 역외 국가(미국)의 적극적 군사활동에도 원인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함.
- 울리야노프 국장은 지난주 자국 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관련국
모두에 협상으로 복귀할 것과 한반도 지역에 대한 군사력 강화 조치를 자제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서방도 북한도 사태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5. 1.

■ 北당국자, 美입박속 아프리카 돌며 '김일성 향수' 자극(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의 신홍철 부상은 지난달 21일 평양에서 출발해 최근 알제리와 모리타니 등 북·서아프리카의 이슬람권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음.
- 신홍철은 지난달 24일 하산 라베히 알제리 외교·국제협력부 사무총장(총서기)과 가진 '제1차 정치협상회의'에서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이 알제리 정부와 국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 것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함.
- 라베히 사무총장도 김일성이 '알제리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줬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인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명령 발표...제재 적극 동참(연합뉴스)

- 1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2017년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명령'을 관보에 게재해 발효시킴.
- 고팔 바글라이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이 명령은 유엔 헌장 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에 거론된 조치들을 하나로 합쳐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번 명령으로 북한에 대해 자산 동결, 여행 금지, 해상운송 차단·조사, 금융 조치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발언함.
- 인도는 또 북한 군사조직, 준(準)군사조직과 경찰 훈련을 위해 훈련관·자문관을 초청하는 등의 군·경 협력 행위도 중단하도록 했으며, 군인이 아니더라도 북한국민에 대해 고등 물리학, 컴퓨터 과학, 원자력공학, 항공공학 등 핵확산이나 핵무기 운송 수단 개발과 관련한 전문 교육·훈련을 금지함.

2017. 5. 4.

■ 라울 카스트로 "쿠바, 北과 반미전선에 함께 있을 것"(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직업연맹 위원장이사회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쿠바를 방문한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카스트로 의장을 만났다고 보도함.

- 통신은 "카스트로 의장은 현재의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면서 쿠바는 조선 노동당과 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반미 공동 전선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함.
- 주 위원장은 미겔 마리오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 쿠바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 등도 만났으며, 디아스-카넬 수석부의장은 "쿠바는 언제나 조선 인민의 편에 서 있을 것이며 변함없는 연대성을 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4. 29.

■ 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수분간 비행하다 공중폭발연합뉴스)

- 북한이 29일 오전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수 분간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함.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30분께 평남 북창 일대에서 북동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힘.
- 이 미사일은 북창에서 방위각 49도의 북동쪽 방향으로 날아갔으며, 최고고도 71km까지 올라가 수 분간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참은 설명함.

2017. 4. 30.

■ 北, 美항모 공격용 '북한판 등평미사일' 개발 열중(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9일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을 표적으로 삼는 신형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미국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포착하면 'KN'에 새로운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명명하며,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KN-17인 것으로 미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음.
- KN-17은 스커드 단거리미사일의 개량형인 것으로 추정됨.

2017. 5. 2.

■ 中, 北 미사일 기술 '흑평'...“기술 부족 드러내”(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일 '북한 미사일이 잇따라 실패한 원인이 뭔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5일과 16일, 29일에 미사일 발사

- 시험을 했는데 전부 실패한 점을 주목함.
- 이 매체는 군사 전문가 등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는 미숙한 미사일 기술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사이버 공격과 무관한 이유는 북한의 발사 차량에 현대화된 정보통신 지휘 시스템이 탑재되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중국 탄도미사일 기술전문가이자 양자(量子)국방사무 수석과학자인 양청권(楊承軍)도 북한 미사일의 발사 실패가 미숙한 기술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지난달 3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북한 미사일의 기술 수준을 반영했다"면서 "현재까지 보면 북한 미사일의 안정성과 성공률이 모두 낮은 편이고 성공률이 50%도 안 되며 심지어 30%에도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혹평함.

2017. 5. 4.

■ 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물빼기 작업, 배구 게임도”(연합뉴스)

-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38노스의 조지 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갯도에서 물빼기 작업이 진행되는 등 핵실험 관련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함.
- 북쪽 갯도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며, 물빼기 작업은 갯도 내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그는 설명함.
- 핵실험 관련 건물 주변에서는 배구 경기 등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한 모습이 나타났으며, 주(主) 지원본부 건물의 북쪽 운동장에서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또 노동자들이 배구 게임을 하는 모습이 관측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4.29		“美, 석유수출금지 포함 안보리 北 추가제재 초안 韓日에 전달”(연합뉴스)
	5.1	“사드 비용, 재협상 사안 아니다”(연합뉴스)	美 맥매스터 “사드 비용 재협상…그 전까진 기존협정 준수”(연합뉴스)
		윤병세 “美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 발언 함의 중요”(종합)(연합뉴스)	
	5.2	외교부 “北과 대화할 조건 충족 안됐다는게 美 입장”(연합뉴스)	
“한미일 등 7개국, 오늘 서울서 北제재 실무 협의…EU도 참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4.29		中 왕이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문제 당사자간 신뢰 훼손”(종합2보)(연합뉴스)
	4.30		中인민일보 “북한·한미, 오해·오관 부를 행동 서로 자제해야”(연합뉴스)
	5.2		中, 韓 국방부 사드가동 준비 완료에 “필요한 조치할 것” 반발(연합뉴스)
	5.4		中시진핑, 한반도 비핵화의지 강조… “대화·협상 해결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4.29	한·미·일 외교장관, 한 목소리로 “북핵문제 강력 대응”(종합)(연합뉴스)
	5.2	윤외교, 美日대사와 3자 면담…대북압박 연속성 강조(종합)(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4.29		중외교부 “왕이·틸러슨, 대북결의 엄격이행·평화수단 견지키로”(연합뉴스)
	5.2	펜스 “北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中 대북압력 더욱 강화해야”(연합뉴스)	
		美하원 군사위원장 “군사력 확충해 中 대북압력 강화 끌어내야”(연합뉴스)	
5.3	“미·중, 유엔 안보리서 대북 추가제재안 논의”(연합뉴스)		
	주중 美대사 내정자 “中에 대북제재 이행 촉구하겠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5.1	日자위대 호위함, 美해군 보급함과 합류…보호 임무 첫 개시(종합)(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5.1		주중 러 대사 “美 대북 군사압박, 北 대응 행동만 초래” 비판(연합뉴스)
	5.3	트럼프-푸틴 “매우 위험한 北상황 논의”…시리아 사태도 협의(종합2보)(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4.30	중외교부 “중일 외교장관, 양국 관계 회복 위해 노력”(연합뉴스)	
	5.4		日, 對中 의원외교 활발…“대북제재 동참 유도”(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4. 29.

■ “美, 석유수출금지 포함 안보리 北 추가제재 초안 韓日에 전달”(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을 상정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추가 제재 결의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일본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함.
-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가 나오기 전에 이런 추가 제재 결의 초안을 한국·일본 등에 외교 루트를 통해 전달함.
- 미국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담긴 핵심은 북한에 대한 최강의 제재 조치 중 하나로 꼽히는 석유 수출 금지인 것으로 전해짐.

2017. 5. 1.

■ 美 맥매스터 “사드 비용 재협상…그 전까진 기존협정 준수”(연합뉴스)

-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 논란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힘
-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진행자인 크리스 윌러스가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한국 부지제공, 미군 비용부담)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설명함.
- 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담은 청와대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과는 사뭇 달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 “사드 비용, 재협상 사안 아니다”(연합뉴스)

- 정부는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힘.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음.
- 앞서 청와대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음.

■ 윤병세 “美 ‘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 발언 합의 중요”(종합)(연합뉴스)

- 윤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지난달 28일 유엔 안보리 북핵 특별회의 발언 등에 담긴 미국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최근 공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방점은 "제재와 압박"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함.
- 윤 장관은 틸러슨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 "과거와 같은 대화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계기에 이야기했다"며 대화를 하려면 "제대로 된 진정성있는 '비핵화 대화'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소개함.
- 윤 장관은 "과거 20여년간 많은 노력을 했고 합의도 있는데 틸러슨은 그것이 '실패'였다고 했다"며 "이번에 하려는 것(북핵 해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힌 뒤 미국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함.

2017. 5. 2.

■ 외교부 “北과 대화할 조건 충족 안됐다는게 美 입장”(연합뉴스)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황이 적절하면 북한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데 대해 아직 대화의 조건이 충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인식이라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백악관 대변인도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 및 선의와 관련해 충족돼야 할 다수의 조건이 있으나, 분명하게도 지금은 그런 조건이 올바르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함.
- 조 대변인은 이어 "지난 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금은 대북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며, 선부른 대화를 통해서 보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소개함.

■ **“한미일 등 7개국, 오늘 서울서 北제재 실무 협의…EU도 참가”(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서방 7개국과 유럽연합(EU)이 2일 서울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논의하는 실무 협의를 연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 회합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와 EU의 실무자가 참가함. 일본측 참가자는 외무성의 한·일 경제실장임.
- 참가자들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각국이 이행 중인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임.

나. 한·중 관계

2017. 4. 29.

■ **中 왕이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문제 당사자간 신뢰 훼손”(종합2보)(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북핵 문제 당사자 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왕 부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핵위협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가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다시 거론함.
- 그는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북한 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사드 배치가 북한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예들려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2017. 4. 30.

■ **中인민일보 “북한·한미, 오해·오관 부를 행동 서로 자제해야”(연합뉴스)**

- 북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가 북한과 한미 쌍방이 오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0일 사설 격인 종성(鐘聲) 칼럼을 통해 북한이

자신의 안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핵 개발은 자신은 물론 동북아 전체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핵 개발이 제재를 낳고 미사일 발사가 추가 제재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또 한미당국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에서 항상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해왔으며 군사훈련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함.

2017. 5. 2.

■ 中, 韓국방부 사드기동 준비 완료에 “필요한 조치할 것” 반발(연합뉴스)

-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가 가동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라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단호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힘.
- 정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사드가 가동 준비를 마쳤다는 데 대해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앞으로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통해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함.
- 정 대변인은 "사드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고 확고하다"며 "우리는 미국과 한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사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함.

2017. 5. 4.

■ 中시진핑, 한반도 비핵화의지 강조…“대화 협상 해결해야”(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피력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섬.
-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안정 유지를 확고히 견지한다"면서 "대화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함.

다. 한·일 관계

2017. 4. 29.

■ 한·미·일 외교장관, 한 목소리로 “북핵문제 강력 대응”(종합)(연합뉴스)

-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에 맞서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해짐.
- 3국 장관은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이 선택을 바꿔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함.
 - 아울러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억지력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한편, 추가도발시에는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뛰어넘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채택하자는 의견도 공유함.

2017. 5. 2.

■ **윤외교, 美日대사와 3자 면담...대북압박 연속성 강조(종합)(연합뉴스)**

-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윤 장관과 회동, 북핵 공조 방안을 협의함.
- 윤 장관과 내퍼 대사대리, 나가미네 대사는 협의에서 지금까지의 북핵 대응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 도발' 가능성을 전망하는 한편,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어떠한 추가 제재·압박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짐.
- 이와 함께 일주일 앞으로 한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 만큼 새 정부 출범과 상관없이 대북 공조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자는 의지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4. 29.

■ **중외교부 “왕이·틸러슨, 대북결의 엄격이행·평화수단 견지키로”(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자는데

- 뜻을 모았다고 중국 외교부가 29일 밝혀짐.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뉴욕에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중인 미중 외교장관들이 28일(현지시간) 별도로 만나 한반도 해법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함.
 - 두 장관은 우선 현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장관급 회의 개최가 필요하고 적당한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함.

2017. 5. 2.

■ 펜스 “北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中 대북압력 더욱 강화해야”(연합뉴스)

- 펜스 부통령은 이날 CBS방송의 '디스 모닝'에 출연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수입 중단 등을 언급하면서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주 말한 것처럼 중국은 (압박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직접 접촉하고 있으며, 중국이 과거보다 더욱 북한에 (압박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핵심은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야심을 영구히 하지 않도록 미국과 동북아 동맹이 중국과 함께 (북한에) 외교·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며 "김씨 일가의 압제적 정권 아래서 사는 국가를 들여다보는 것은 나로서는 으스스한 경험"이라고 말함.

■ 美하원 군사위원장 “군사력 확충해 中 대북압력 강화 끌어내야”(연합뉴스)

- 맥 손베리(공화 텍사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대북 군사적 옵션을 위한 미 전력 확충을 주장함.
- 손베리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거론하면서 "지난 몇 년간 국방예산을 20% 감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옵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함.
- 그는 "우리는 여전히 신뢰할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요점은 우리가 이들 지역에서 미군을 늘려야 하며 우리의 군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분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국방예산 확충을 강조함.

2017. 5. 3.

■ **“미·중, 유엔 안보리서 대북 추가제재안 논의”(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추가 대북제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중이 제재를 포함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더 강력한 대북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매체는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이처럼 전했으나, 중국이 새 제재에 얼마나 '열린 자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임.

■ **주중 美대사 내정자 “중에 대북제재 이행 촉구하겠다”(연합뉴스)**

- 2일(현지시간) AP·AFP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중 미국 대사로 내정된 브랜스테드는 이날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고 정의한 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힘.
- 브랜스테드 내정자는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따르지 않았으며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국의 이런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어 "북한 정권의 핵과 유도미사일 보유 강박이 인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이제는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그 누구보다 북한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

나. 미·일 관계

2017. 5. 1.

■ **日자위대 호위함, 美해군 보급함과 합류...보호 임무 첫 개시(종합)(연합뉴스)**

- 미국 해군의 보급함 보호 임무를 부여받은 일본의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 이즈모가 1일 오후 지바(千葉) 현 보소(房總)반도 인근 해상에서 해당 보급함과 합류했다고 NHK가 보도함.
- 앞서 이즈모는 이날 오전 10시께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스카(横須賀) 기지를 출항함.

- 미국 해군의 보급함과 합류함으로써 이즈모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안보법에 의해 처음으로 미군 함정을 보호하는 임무를 개시함.

다. 미·러 관계

2017. 5. 1.

■ 주중 러 대사 “美 대북 군사압박, 北 대응 행동만 초래” 비판(연합뉴스)

-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 당사국들의 자제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군사적 해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함.
-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데니소프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일치할 정도로 가깝다"면서 "러시아도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소개함.
-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하게 비난한다"면서 "왜냐하면 이는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어느 정도는 미국이 방어력을 강화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그는 미국의 방어력은 실제론 공격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임.

2017. 5. 3.

■ 트럼프-푸틴 “매우 위험한 北상황 논의”…시리아 사태도 협의(종합2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강화하기로 함.
-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미국 동부시간)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 사태가 너무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인도주의 등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힘.

라. 중·일 관계

2017. 4. 30.

■ 中외교부 “중일 외교장관, 양국 관계 회복 위해 노력”(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중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중국 외교부가 30일 밝힘.
- 왕 부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 중인 기시다 외무상과 별도 회견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눔.
- 왕 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와 내년은 각각 양국 수교 정상화 45주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라며 "이를 계기로 중일은 이전 세대가 달성한 중요한 공통 인식을 되새기고, 양국 관계의 주요한 정치적 기초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힘.

2017. 5. 4.

■ 日, 對中 의원외교 활발...“대북제재 동참 유도”(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에 대한 의원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올해로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갈등으로 조성된 양국간 불편한 관계를 의원외교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및 추가 핵실험 카드를 제시하며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높이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4.29	'아랍의 봄' 발원지 튀니지서 北인권 다룬 국제세미나 첫 개최(연합뉴스)
	5.1	HRW "북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재차 촉구(자유아시아방송)
	5.2	"국제인권단체, 北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재차 촉구"(연합뉴스)
		유엔 특별보고관 3일 방북...북한 내 장애인 차별 여전히 만연(미국의소리)
	5.3	노체인, 미국서 '강제노역' 등 북 인권 고발(자유아시아방송)
5.4	북한,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평양 도착' 보도(미국의소리)	
	세계언론자유의 날... "북한은 언론자유 블랙홀"(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4.30	"말레이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월급 90% 상납"(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남한동향	4.30	北매체, 인권증진계획 맹비난 "대결 광신자들의 광대극"(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문포로	5.1	탈북민 3명 중 2명 南생활 '만족'... "자유·여유 생겨서"(연합뉴스)
		"현 거주지 좋다" 응답 탈북자 많은 이유?(자유아시아방송)
	5.2	이산가족 유전자 검체 관리, 정부가 맡는다(연합뉴스)
		탈북민 소통·편의 강화한 공식 통합포털 생긴다(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 여성... '여초' 현상 왜?(연합뉴스)
5.3	이산가족 생존자 6만1천여명... 지난해 3천여명 사망(연합뉴스)	
대북지원	5.2	"스웨덴, 유엔 대북사업에 9억원 지원"(연합뉴스)
		프 NGO, 4월부터 북 노인지원 사업(자유아시아방송)
	5.3	오바마 대북지원 약속 100만불 지난달 전달(자유아시아방송)
	5.4	유니세프, 18일 북한서 '어린이 보건의 날' 개최(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4. 29.

■ ‘아랍의 봄’ 발원지 튀니지서 北인권 다룬 국제세미나 첫 개최(연합뉴스)

- 29일(현지시간) 튀니지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28일 튀니스에 있는 디플로마호텔에서 '세계 인권문제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음. '아랍의 봄' 발원지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국제 세미나가 처음으로 개최됨.
- 튀니지 아랍민주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직 아랍권 외교관,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탈북자 등 7명이 발제자로 나섰다.
- 이번 세미나 진행을 도운 주최 측 관계자는 "아랍권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튀니지에서 북한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탈북민이 북한의 인권탄압을 직접 증언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17. 5. 1.

■ HRW “북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재차 촉구(자유아시아방송)

-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파람 프리트 싱(Param-Preet Singh) 국제재판 상임고문은 1일 북한 주민에 대한 당국의 잔혹한 처우가 북한의 핵 야망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 북한의 인권 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한 후에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겨우 인권에 대한 짚막한 언급을 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싱 고문은 말했다.
- 북한의 핵과 인권유린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국가들이 서서히 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수 많은 인권 유린 피해자들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준다고 그는 덧붙였다.

2017. 5. 2.

■ “국제인권단체, 北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재차 촉구”(연합뉴스)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촉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음.

- 휴먼라이츠워치의 파람 프릿 싱 국제재판 상임고문은 지난 1일(현지시간) "안보리는 정의구현 차원에서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면서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더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21호에 명시한 대로 북한 주민의 궁핍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엔 특별보고관 3일 방북... '북한 내 장애인 차별 여전히 만연' (미국의소리)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혔음.
- 북한에서 열차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탈북자 지성호 씨는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북한에서는 장애인 등 신체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다고 말했음.
- 보고서는 북한이 청각과 시각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기숙학교를 11곳에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체 또는 중복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포괄하는 학교나 교육체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가 필수적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군 복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음.

■ 노체인, 미국서 '강제노역' 등 북 인권 고발(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직접 겪은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행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음.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한국의 인권단체 노체인이 2일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 토론회를 개최했음.
- 말레이시아 인민보안성 산하 공병지도국 금릉무역회사 현장매니저 즉 관리자로 일하다 2010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철호 씨는 말레이시아에 두 차례 파견되었는데 처음 20대에 파견되었을 당시는 돈을 벌기 보다는 당원이 되기 위해 하루 12시간 가량의 고된 노동을 견뎠다고 말했음.
- 이 씨는 이날 행사에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에 인민봉사총국 산하 대외건설총국에서 파견된 노동자 500여 명 등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에 700여 명의 노동자가 있었다고 말했음.

2017. 5. 3.

■ **북한,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평양 도착' 보도(미국의소리)**

-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에서 아길라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이 옛 새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어린이를 포함한 장애인 인권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아길라 보고관은 이번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장애인 관련 현실과 법, 정책, 프로그램과 함께, 2016년 북한이 비준한 장애인협약을 이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길라 보고관은 일정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방북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 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2017. 5. 4.

■ **세계언론자유의 날...“북한은 언론자유 블랙홀”(미국의소리)**

- 북한은 헌법 67조에 언론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음.
-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에는 독립적인 언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과 잡지, 인터넷 등을 정부와 집권당이 철저히 통제한다고 말했다.
-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2월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는 독립적인 언론매체가 전혀 없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말레이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월급 90% 상납”(미국의소리)**

- 말레이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매일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현지에서 일했던 탈북자 이철호 씨가 말했다.
-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씨는 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하루 2시간이나 4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자지 못한 날도 많았다고 말했으며, 특히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고, 1년에 쉬는 날이 모두 합해 열흘 정도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주로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에서 일했던 이 씨는 당시 북한 노동자 약 700명이 광업과 주택건설, 도로공사 등에 종사했다고 말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이처럼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월급의 10%도 갖지 못하고 나머지는 당국이 가져 간다고 말했다.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4. 30.

■ 北매체, 인권증진계획 맹비난 “대결 광신자들의 광대극”(연합뉴스)

- 북한 관영 매체가 30일 거친 표현을 동원해 통일부가 최근 마련한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맹비난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결 광신자들의 무모한 광대극'이라는 제목의 개인명의 논평에서 "괴뢰 통일부의 이번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조작 놀음은 숨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족 대결 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는 대결 미치광이들의 추악한 물골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통일부는 지난 25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북한 주민에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 간 인권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4. 30.

■ 정부, 남북대화 본격 준비하나..인권·체육회담 시나리오 개발(연합뉴스)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북한 인권·체육분야의 회담 시나리오 및 대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30일 확인됐음.
- 남북 간 인권대화나 체육회담이 진행될 시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회담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 간에 본격적인 대화 국면이 펼쳐질 때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통일부 당국자는 "인권대화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야 하고, 체육회담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나 대북 인도적지원도 인권문제의 하나로 다뤄나간다는 계획이어서 인권대화의 범주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남북자·국군포로

2017. 5. 1.

■ 탈북민 3명 중 2명 南생활 '만족'...“자유·여유 생겨서”(연합뉴스)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3명 중 2명꼴로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1만1천9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67.0%(8천51명)로 나타났다.
-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유'나 '여유'와 관련한 내용(복수응답)이 많았음. 만족한다는 응답자 8천51명의 47.3%(3천735명)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44.7%(3천658명)는 '북한에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라고 답했음.
- 이번 조사는 1997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만 15세 이상의 탈북민 1만1천91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남북하나재단 소속 전문 상담사의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음.

■ “현 거주지 좋다” 응답 탈북자 많은 이유?(자유아시아방송)

- 탈북자들이 남한의 일반 국민들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착이 큰 것으로 조사됐음.
- ‘남북하나재단’이 진행한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조사에 참여한 탈북자 2663명 가운데 85.9%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나 애착심을 갖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음. 동일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남한 일반 국민들의 비율은 56.9%였음.
- 현재 거주지에 대해 탈북자들이 큰 애착을 갖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삶의 터전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또한 남과 북에서의 삶을 비교해보는 탈북자들의 특성도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이산가족 유전자 검체 관리, 정부가 맡는다(연합뉴스)

- 1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이 보관했던 이산가족들의 혈액·타액·모발 등의 유전자 검체들이 이달 말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전돼 보관·관리됨.
-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음.

-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개정안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임.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체는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민간 업체가 검사하고 보관 하면서 검체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2017. 5. 2.

■ 탈북민 소통·편의 강화한 공식 통합포털 생긴다(연합뉴스)

- 통일부가 탈북민들의 소통과 편의를 위한 공식 통합포털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 해 내년 초부터 운영할 예정임. 2일 통일부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발표된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방안의 후속으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진행함. 예산 7억8천8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이달 초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임.
- 통일부가 구축·관리할 통합포털에는 탈북민 상호 정보교환과 멘토링, 애로 상담 창구의 기능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학력확인서 등 주요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기능이 마련됨. 또 현재 부처마다 제각각인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포털에 망라해 취업·교육·의료 등으로 분류한 뒤 체계적으로 안내·상담하는 서비스를 탈북민들에게 제공함.

2017. 5. 3.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 여성... '여초' 현상 왜?(연합뉴스)

-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여성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체 탈북민은 3만490명으로, 이중 여성이 71%(2만1천642명)나 됨. 이런 '여초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임.
- 지난해에는 1천418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했는데, 이중 여성의 비율은 79%(1천119명)에 이룸. 올해 들어 3월까지 입국한 탈북민 278명 중 여성 비율은 83%(232명)에 달하고 있음.
-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소위 '돈벌이'가 안 되는 직장에 의무적으로 출근하고 여자들이 장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자들이 (돈을 벌러)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결국 한국까지 온 사례가 많다"고 말했음.

■ 이산가족 생존자 6만1천여명... 지난해 3천여명 사망(연합뉴스)

- 북한에 혈육이 있는 이산가족이 고령으로 급격히 줄어 생존자가 6만1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현재 살아 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는 6만1천322명으로, 한 달 전보다 315명 줄었음.

- 3월 한 달 사이 321명이 사망했고 6명이 새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음. 정부는 상봉 신청자를 기준으로 이산가족 규모를 집계함. 현실적으로 그 외의 방법으로 파악할 수단이 없기 때문임.
- 통일부 관계자는 59세 이하의 신청자에 대해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태어난 이산가족 2, 3세가 얼굴을 모르는 북측의 가족을 만나겠다고 신청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5. 대북지원

2017. 5. 2.

■ “스웨덴, 유엔 대북사업에 9억원 지원”(연합뉴스)

- 스웨덴 정부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대북사업에 미화 80만 달러(한화 9억원)를 지원키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최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자료'에서 스웨덴 정부가 최근 이 같은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음.
- 구체적으로는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가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건 사업에 56만5천 달러를 지원해 취약계층에게 영양 보충제와 필수 의약품 등을 제공할 예정임.

■ 프 NGO, 4월부터 북 노인지원 사업(자유아시아방송)

-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GH)는 2019년 3월까지 북한 노인을 대상으로 '고령자 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 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음. 이 사업을 위해 유럽연합 국제개발청(EuroAid)으로부터 미화 약59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덧붙였다.
- 우선 지원 대상은 조선노인연맹 중앙회와 지역위원회 소속 700명과 은퇴자 시설에 거주하는 300여 명의 직원과 500 명의 노인들임. 이 단체는 직간접적으로 노인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북한 주민이 33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음.

2017. 5. 3.

■ 오바마 대북지원 약속 100만불 지난달 전달(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국제지원금 관련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를 하루 남기고 지난 1월 북한에 지원한 미화 1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금이 유니세프, 즉 유엔아동기금(UNICEF)에 지급이 완료됨.
-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2011년 이후 약 6년 만으로, 2011년 미국 정부는 민간 구호단체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음.
- 아울러 북유럽의 노르웨이 정부도 적십자를 통해 노르웨이 화폐인 약 250만 크로네(2,486,486kr), 미화 약 30만달러(\$290,919)를 식량과 보건, 영양, 식수, 위생 지원 등의 필요한 홍수 피해 지원 자금으로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음.

2017. 5. 4.

■ 유니세프, 18일 북한서 '어린이 보건의 날' 개최(연합뉴스)

-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오는 18일 북한에서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쉬마 이슬람 대변인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설사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 또 비타민 A와 구충제, 종합비타민제, 경구 수분보충제, 아연보충제 등도 지원하며 아이들의 영양 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북한 보건성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 계층에 구충제와 비타민 등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음.
- 유니세프는 앞서 '2017 대북 지원 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700만 달러를 영양 사업에 투입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 6만여 명을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